

시각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다



30년간 국내 시각장애인 콘텐츠 발전에 힘쓴 황덕경 씨는 비장애인이 즐기는 콘텐츠를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공덕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의 한 스튜디오 부스에서는 녹음이 한창이다. 이곳의 센터장인 황덕경 씨와 편집자는 쉽지가 않음에 녹음 사항을 주문한다. 그런데 과정을 지켜보니 보통의 영상 녹음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조금은 새롭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랍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TV를 시청하는데요, 그들에게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장면의 전환,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몸짓, 대사 없이 처리되는 장면을 음성 해설합니다. 화면해설을 통해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생생하게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황덕경 씨는 지난 30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왔다.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시각장애인 콘텐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공로로 황덕경 씨는 2020년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상했다.

기자를 꿈꾸던 소녀, 사회복지의 길에 들어서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즐기고 홀로 실시간 보도를 연습하기도 한 황덕경 씨는 기자가 되길 꿈꿨다. 그녀는 당시 방송반으로 유명했던 서울 혜화여고에 입학해 교내 학우들을 취재하고 기사를 썼다. 그녀 스스로도 꿈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생각으로 하루가 설레었다.

하지만 부모의 생각은 그녀와 달랐다. 밤 새우기 일췌에 온갖 지역을 다니며 취재해야 할 기자보다는 일정한 시간 출퇴근하는 직업을 갖길 원했다. 부모의 권유와 본인 스스로 내린 현실적 타협을 통해 그녀는 식품영양학에 진학했다.

대학 시절 황덕경 씨는 성당의 봉사 활동을 통해 방문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만나게 됐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1990년대 초였다. 황덕경 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지내는 그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앞섰다. 상상 이상으로 장애인을 돕는 일은 어려웠다. 가벼운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한 그녀의 마음은 이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사명감과 보람을 느꼈다.

자연스레 장애인 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황덕경 씨는 졸업 무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1기 공채 모집에 응시했다. 당시 월급은 28만 원이었는데 그녀의 대학 동기들의 월급은 50만 원이 넘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녀에게 급여의 액수는 그리 문제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대표 콘텐츠

서비스…소리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직 2년 차에 황덕경 씨는 상사로부터 정보화사업을 맡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고교 시절 품었던 미디어 매체에 대한 꿈을 이 사업을 통해 풀 수 있겠다는 생각에 거리낌 없이 수락했다. 일간지 뉴스를 시각장애인이 듣도록 콘텐츠화하는 일련의 작업은 현재 음성정보 시스템인 ‘소리샘’으로 불린다.

오전 9시에 출근한 황덕경 씨는 10시까지 주요 일간지 섹션들을 정리해서 재나열하는 편집을 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2시, 잠시 점심시간을 갖고 또다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육성 녹음을 진행했다.

황덕경 씨 홀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버거운 업무였다. 무엇보다 정보전달 속도가 너무 늦다는 문제도 있었다. 비장애인은 오전 7시에 접할 소식을 시각장애인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고민 끝에 자원봉사자를 찾아보기로 했

다. 큰 비용을 들일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성우 지망생 위주로 기용했다. 시각장애인을 돕는다는 자긍심으로 크게 활약한 그들은 나중에 방송국 성우 공채에 대거 합격하기도 했다. 일약 성우 지망생들의 트레이닝 코스로 급부상하며 자연스레 육성 녹음 자원봉사자들이 몰렸고, 음성정보 시스템인 ‘소리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표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됐다.

시각장애인 전용 화면해설 최초 도입

1999년 미국 보스턴 장애인방송사로 연수를 갔던 황덕경 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를 접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녀는 1년간의 준비 끝에 제1회 장애인 영화제를 통해 국내 최초로 영상에 화면해설을 도입했다.

황덕경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없이 방송국 관계자를 만나며 화면해설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화면해설이 없던 시절, 홈쇼핑에서 시각장애인이 물건을 구매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방송 내내 주문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있지만,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구매 전화조차 걸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 생각에는 수없이 말로 설명하는 쇼호스트 덕에 필요 없을 것 같은 홈쇼핑에서도 화면해설이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워요. 허리 2cm에서 발목 복숭아뼈 위 5cm까지라는 식의 세세한 설명이 필요해요”라고 황덕경 씨는 말했다.

미디어 콘텐츠는 빠르게 발전해왔다. 통상의 텔레비전 매체를 넘어 현 시대에는 유튜브 등의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가 미디어 시장의 주를 이룬다. 황덕경 씨 역시 이런 변화에 발맞춰왔다. 지난 30년의 기간 동안 쌓아온 시각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노하우를 응집해 구축한 ‘미디어접근센터’가 그것이다. 콘텐츠 수와 질은 국내 최고이자 최대다.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없던 화면해설을 해보자고 함께 의기투합한 여러 화면해설작가와 성우, 팀원이 노력한 결과 TV방송에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갈 길은 아직 멉니다. 무수한 인터넷 미디어 매체에 대한 화면해설의 법적 보장과 터치식 가전제품이나 키오스트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사용하게끔 하는 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황덕경 씨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글 편집부



황덕경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시각장애인 콘텐츠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